지속 성장 기반과 양극화 해소 방안 구축이 '최우선'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설문조사, 최저가낙찰제확대는'반대'-

이제 곧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대해서는 여러가지 정치적 · 사회적 의미가 다양하게 부여되고 있지만, 건설산업에있어서도큰의미를가지고 있다.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참여정부가추진해온건설및부동산정책과는여러모로차별화되는정책기조를가지고 있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기때문이다.

건설산업전체로보면주택 · 부동산분야를 중심으로 한 친시장적 · 친기업적 정책, 한반도 대운하 등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공공공사발주및입낙찰제도를중심으로 한 건설 정책 부문에서는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함께불안과우려도함께존재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켜켜이 쌓인 난제들이 수도 없이 많기도 하거니와, 참여정부에서 크게 불거진 건설산업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쉽지않기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정부의과제를알아보기위하여수행된 설문조사의결과를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건설산업 관련전문가100인을대상으로, 건설정책수립에있어중요하게고려되는5가지의카테고리를설정하여 각분야별로 건설업계가 원하는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에대한방향성을검토해보았다. 설정된5가지의주요분야는생산체계의합리화, 입낙찰제도의선진화, 양극화해소및상생방안구축, 건설산업의투명성및사회적인식제고, 지속적성장기반구축등이다.

참여정부의 건설 정책 평가

"생산체계 합리화"68%가 긍정적

참여정부의건설정책에대해5가지주요분야별로 평가를 질의한 결과, 생산 체계의 합리화분야에대한평가가가장긍정적이었으며,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분야에 대한 평가가가장부정적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보면, 겸업제한폐지, 부실업체퇴출등생산체계의합리화부분에대해서는 전체의 68%가 매우 긍정적 및 긍정적으로답한반면부정적인응답은 7%에불과해「건산법」개정을통한 일반 · 전문 간 겸업 제한 폐지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알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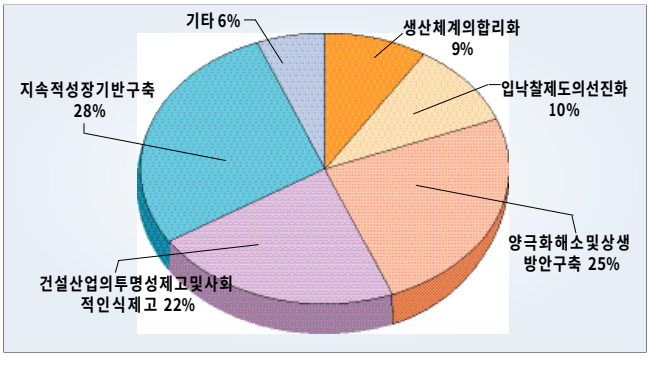
"입낙찰제도선진화"는 45%가부정적

최저가낙찰제도확대,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 턴키/대안입찰공사의낙찰자 결정 방식 다양화, 순수내역입찰제도도입 등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 45%가 부정적 및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긍정적인답변도 28%에달했다. 이는 입낙찰제도부분에서이루어진개선들은그 성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부정적인답변은최저가낙찰제도의확대에주로 중점을둔결과로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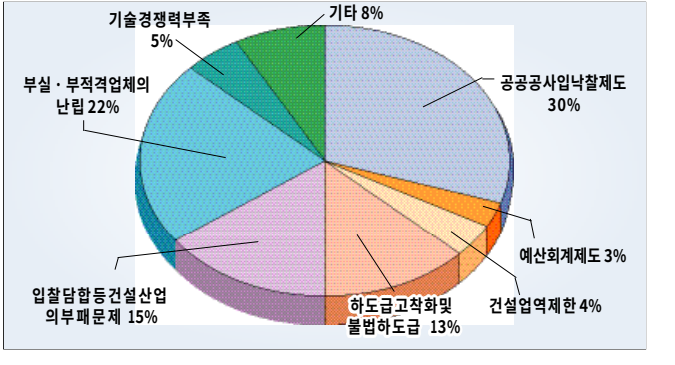
"양극화 해소노력"에도긍정적인평가

지역중소업체에대한지원강화등양극화해소및상생방안구축부분에대해서는 전체의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양극화 해소를위한참여정부의노력에대해서도충분히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처벌 규정 강화, 정보의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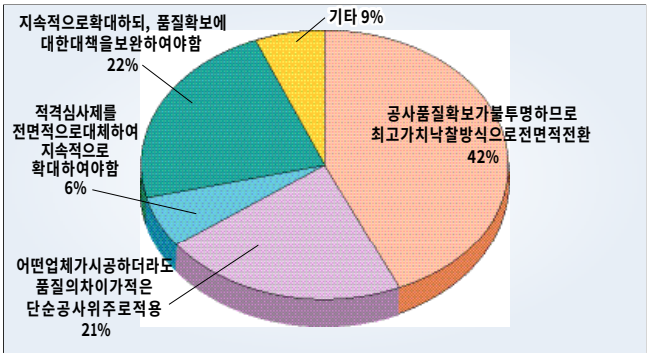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건설 정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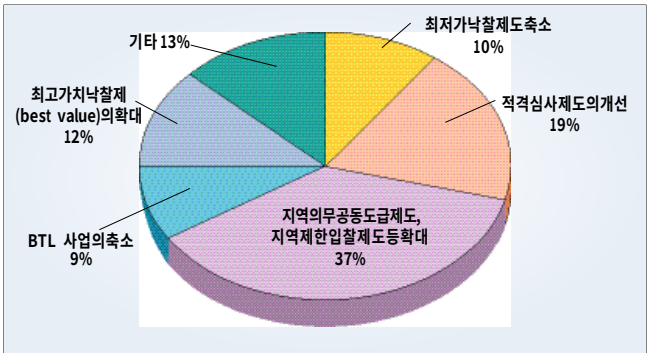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건설 생산 체계의 최대 문제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견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명성 확대, 설계심의제도개선 등 건설산업의투명성제고및사회적인식제도부분에대해서도전체의48%가긍정적으로답변한반면부정적으로평가한응답은11%에불과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BTL 방식도입등민간자본의활용확대, 건설기술경쟁력강화등의 지속적성장 기반구축부분에 대해서는 4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24%에달해다소평가가엇갈렸다.

차기 정부의 건설 정책 과제

‘ 지속성장 기반구축 이 최우선 과제

차기정부의과제에대하여우선, 앞서제시한5가지의주요카테고리에대하여차기정부가 어디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생각하는지질문하였다. 그결과, 응답자의 28%가 지속적성장 기반구축이라고답했으며, 양극화 해소 및 상생 방안 구축(25%),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인식제고(22%) 등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반면, 생산체계의합리화, 입낙찰제도의선진화는각각9%, 10%에머물러우선순위에서밀리는양상을보였다. 이는응답자의 대부분이 건설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심각하게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가 최대문제점

5개의 카테고리에 대한부문별 질문에서는각분야별로건설산업이가지고있는문제점과향후 정책 방향을 질문하였다. 생산체계의 합리화 부분에서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최대 문제점을 질문한결과, 30%가공공공사입낙찰제도라고 답했으며, 22%가 부실 · 부적격업체의 난립이라고 답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인 일반 · 전문건설업 간 업역허용에대한 향후영향에대해서는기업간수주경쟁이보다치열해질것이라는 의견이 42%로 대다수가 경쟁에 대한 우려를표명했으며, 반면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범위선택에따라효율성이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응답도27%를차지했다.

42%가‘ 최저가낙찰 에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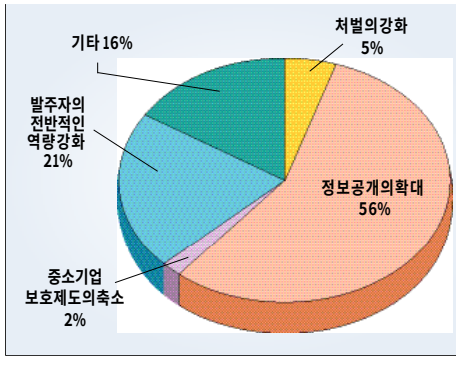
입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발주및 입낙찰제도의가장큰문제점을질문한결과, 36%가사업특성이고려되지 않는 획일적인 발주 기준을 꼽았으며, 발주 및입낙찰 과정의 불투명성 · 불공정성도 26%를 차지했다. 발주기관의 발주능력 및 재량권 부족(10%), 입찰자격 심사의변별력부족(18%) 등은다소낮은비중을나타냈다. 다음으로, 향후 최저가낙찰제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42%가 공사 품질 확보가 불투명하므로 최고가치 낙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최저가낙찰제의확대에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양극화해소및상생방안구축에서는차기 정부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로 나타나, 양극화문제에대한심각성과그해소에대한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리고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37%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제도등물량배분제도의확대를기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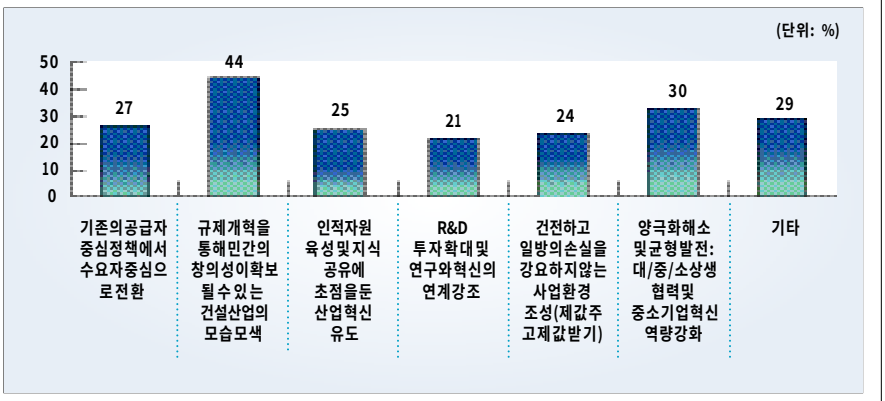
“ 건설업은 불투명 산업 ”34%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사회적 인식 제도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발주제도의 투명성 · 공정성 수준이 선진국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질문하였다. 그결과10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정할 때 5 6점이라는 응답이 34%를 차지하여, 아직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투명성 및공정성을 높이기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정부의장기비전수립시가장역점을두어야할분야(중복응답)



위한정책으로는56%의절대수가정보공개의확대를꼽아정보공개필요성에대한높은기대를나타냈다.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성장가능"22%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을 미래의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하여가장필요한전략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42%가프로젝트기획, 설계, 시공등통합사업관리능력배양을꼽아이에대한건설업체의역량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부의정책이 절실함을 표출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실력(기술력, 설계능력) 중심의 경쟁 체계마련또한 26%로높은응답을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성장 기반의 구축을 위해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정부가장기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모습 모색이 22%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양극화해소및균형발전(15%), 공급자중심의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13.5%) 등이높은 응답률을나타냈다.

"친시장 · 양극화해소 가 조화 이뤄야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설문 응답자들은참여정부의건설정책에대해서는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공공 건설 정책 분야에서는 글로벌스탠더드의도입과시장논리의확대를대전제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과거 정부로부터 지속되어 온 건설 정책 개선의 기본틀이유지되어왔기때문이다. 또한차기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 역시 친시장적선진화라고볼때, 공공건설부문의정책기조는 큰 틀에서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공공 건설 정책 부문에대한기대와우려가공존하게된다. 설문조사결과, 차기정부의건설정책에대한 기대는' 친시장적정책 '과' 양극화 해소 '라는두가지키워드로요약된다. 그런데이두가지 요소는 일정 부분 서로 상충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현재 건설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시장적선진화정책 '또는' 형평및 균형발전 '과같은일방의정책아젠다를추구하는것이아니다. 이러한상반된정책아젠다를적절히혼합하고조절하여균형을잡는것이차기정부의핵심과제가될수밖에 없다. 어려운과제임을알지만, 그러기에더욱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바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swlee@cerik.re.kr

도서 안내

MB 노믹스: 이명박 경제독트린 해부

매일경제경제부 · 정치부지음/매일경제펴냄/26쪽

이책은MB 노믹스의최대 쟁점사항들을하나씩풀이하고있다. 이명박경제독트린 해부를 통해 향후 5년 우리의삶을예측한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희망의물길인지, 700만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프로그램은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지 등 각종 정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진단하고있다. 저자들은이렇게MB 노믹스의모든것을파헤치고 비판과 대안을함께제시하였다. 아울러경제학자가보는MB 노믹스와MB 노믹스를만든사람들도소개하고, 마지막부록편에서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정책공약집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또한 대선 후보 시절에했던인터뷰도수록하였다.

경영에 관한 마지막 충고

시어도어 레빗 지음/정준희 옮김 /스마트비즈니스펴냄/196쪽

시간이지나도변하지않는 비즈니스와 인생의 원칙들을 소개하는「The Last Advice(마지막 충고)」시리즈제1편「경영에관한마지막 충고」이 책은 리더(경영자)들이 조직 내에서 반드시해야 할것을 ' 경영자의 생각 ', ' 조직의 변화 ', ' 기업의경영 '의3부분으로나누어명확하면서도간결한 충고를제시하였다. 특히 ' 지금까지무엇을 했는가 '가아니라 ' 향후무엇을해야하는가 '에초점을 두고경영자의자세를알려주고있다.

2008 재테크 투자전략

서기수 · 김종석 · 신방수 · 김경민 · 곽문경지음/위즈덤하우스펴냄/30쪽

이 책은 세금, 주식, 보험, 펀드, 부동산등각분야전문가 6인이 함께 모여 쓴 2008년형 맞춤식 재테크 투자 전략 가이드이다. 2008년 재테크 시장을 돌아보고변화하는경제환경에 호흡을 맞추어 2008년에 적합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하고있다. 2008년경제환경을바탕으로한과학적이고섬세한재무설계에관해이야기하고있으며, 주식 · 펀드, 부동산, 보험 · 세금재테크 전략을 차례대로소개하였다.